

석유화학기업 주식 “일제히 추락”

교보증권, 중국쇼크에 유가급등 약재 ... 기존 전망보다 크게 낮춰

교보증권은 5월19일 석유화학기업들의 주가가 해외 약재에 발목이 잡혔다며 목표주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고 투자자의견으로 <중립>을 제시했다.

교보증권은 석유화학업종의 주가가 2004년 1월 고점 형성 이후 석유화학 경기정점 논란에 휩싸이며 약세를 보이다 최근에는 중국쇼크 및 유가급등으로 끝없는 추락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유화학기업들은 2004년 1/4분기 석유화학 전반에 걸친 수급 타이트에 따른 가격강세로 사상 최대 수준의 실적을 거두었으나 2/4분기에 들어서면서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나프타 및 기초유분 가격 강세를 겪으면서 합성수지를 중심으로 마진 폭이 다소 축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2/4분기에는 계절적 요인 및 일부기업의 정기보수 등을 감안할 때 1/4분기 대비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3/4분기에는 중국경제의 향방 및 유가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세계 화학산업에서 중국수요가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중국경제가 경착륙하지 않는 한 수급균형이 무너질 우려는 크지 않으나 가격 면에서 당초 전망보다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교보증권 이혁재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수요 급감, 국제유가의 추가 상승 등 현재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요인들이 모두 현실화된다면 석유화학기업들은 실적 둔화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석유화학업계의 기존 전망보다는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실적 둔화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석유화학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해 펀더멘탈상 저평가된 상태인 만큼 기술적 매매 관점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은 높다고 분석했다.

목표주가는 LG화학이 6만5000원에서 4만3500원으로, 호남석유화학이 6만8000원에서 4만원으로, LG석유화학이 2만9000원에서 2만4900원으로, 한화석유화학은 1만2000원에서 7100원으로 낮게 제시됐다. <조인경 기자>

<화학저널 2004/05/20>